

# 광양영재교육원, '2022학년 영재교육 한마당의 날' 운영

### 자연과학영역 90명·발명영역 45명, 135명 수료증 수여 '영재페스티벌' 36개 부스 운영, 축제 한마당 분위기 연출

광양영재교육원은 지난 17일 2022학년도 를 마무리하는 수료식과 영재교육한마당을 운영하였다.

영재교육 한마당은 2부로 구성되는데 1부는 '제 19기 수료식', 2부는 '영재페스티벌'로 운영된다. '제 19기 영재교육원 수료식'은 1년 동안 자연과학과 발명영역에서 열심히 학습하고 활동한 광양영재 학생들의 그 노력을 축하하는 자리이다. 자연과학영역 90명, 발명영역 45명 총 135명 학생들이 영광스러운 수료증을 받았다. 특히 각 학년별 학생들이 나와서 진행한 토크콘서트는 1년간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기존의 형식적

인 수료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수료식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수료식이 되었다.

이어 진행된 2부 행사인 '영재페스티벌'은 자연과학/발명 영역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간 배운 내용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자연과학영역 25개 부스, 발명영역 11개 부스, 총 36개 부스를 운영하여 축제 한마당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자연과학영역 6학년 김○○ 학생 학부모는 "처음 영재교육원에 입학한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잘 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궁금 했

는데, 이번 영재교육 한마당을 통해 영재교육원 1년간 과정을 간접 경험해보면서 자녀들의 배움과 성장을 알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1년간 우리 아이를 잘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올해까지 4년간 자연과학영역을 한해도 빠짐없이 수료하고 영재교육원을 떠나는 홍○○ 학생은 "4년 만에 영재교육원을 벗어나 이렇게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수료식 행사를 경험하게 되어 흥분되고 재밌었다. 특히 단 순히 발표하는 형태로 끝나던 산출물 발표회를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스운영 형태로 운영했던 점이 의미 있었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고 이번 영재교육한마당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광양영재교육원 이계준 원장은 "1년간 영재교육과정을 충실히 수료해준 학생들과 뒷바라지에 애쓰신 학부모님의 노고에 아낌없



는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큰 꿈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 말씀을 전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 2022년 담양 맘·폼 지원단 '만남의 날' 운영



담양교육지원청Wee센터는 지난 17일 담양 관내식당 및 광주지역 공연장에서 맘-폼 지원

단 '만남의 날' 행사를 운영하였다. 맘-폼 지원단은 담양 관내 어머니들 10명과 학생 멘티 16명으로 구성되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멘토-멘티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멘티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뮤지컬 관람을 하며 공감·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담양=박종영 기자

## 구례고, 3학년 전체 학생 대상 '사제동행 걷기 프로그램' 운영

### 3년간 함께 고락 나눴던 선생님·친구들과 함께 진행



구례고등학교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감성과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제동행 걷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3일 구례 오산 사성암에 올라 섬진강과 넓은 평야, 지리산의 연봉들을 한눈에 바라보았다. 산행을 통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3년간 함께 고락을 나눴던 선생님, 친구

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찬 응원을 북돋아 주는 배려가 훈훈함을 자아냈다.

14일 눈 소식이 있다는 일기예보에, '사제동행 문화체험'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구례 자연드림시네마에서 13년 만에 개봉하는 '아바타: 물의 길'을 관람하였다. 영화 관람을 마친 후 인간이 놓쳐서는 안 될 '생명'과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15일 구례 화엄사에서 연기암에 이르는 가벼운 등산코스를 올랐다. 다섯 명의 학생이 문화해설사로 재능기부를 하면서 화엄사를 비롯한 전라남도 일대의 역사를 안내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화엄사의 국보 4점, 보물 8점을 찾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기르고 문화유산 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16일 구례 섬진강 대나무숲길에서 힐링생태탐방로를 따라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곳을 산책하였다. 이곳은 고3 학생들이 울퉁에 소풍으로 왔던 곳이다. 겨울이면 더욱 아름답게 변하는 지리산 노고단의 설경을 조망하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하여 발표해 보도록 하였다.

구례=박진호 기자

## 전남교육청, 읽기 지도 전문가 40여명 양성

전라남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 따라잡기 전문가 40여 명을 양성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6일, 17일 1박 2일간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초·중·고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읽기 따라잡기 전문가 과정 실행연구 사례 발표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읽기 따라잡기 전문가 과정 90시간의 마지막 회기로 실행연구에 대한 사례 발표, 수준별 그림책 제작 특강, 타시도 초기 문해력 교육 실행 연구에 대한 사례 나눔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읽기 지도 향상을 위한 그림책 제작 과정에 연수생들의 큰 관심을 끌



었다. 아이들 수준에 따른 그림책 제작이 읽기 부진 학생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재현 기자

## 목포공공도서관, '문학을 공연하다' 연극 발표회 개최

### 정명여중 연극 동아리 '비상'

목포공공도서관은 지난 16일 정명여중 연극 동아리 '비상' 학생들과 함께한 '문학을 공연하다' 연극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문학을 공연하다'는 목포 문학에 대한 이해와 예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7개월간 극단 '새결' 정권숙 단장의

지도하에 연극의 기초부터 작품 분석, 시나리오 작성, 무대 연출까지 배워가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나갔다. 공연은 목포 지역 대표 여류작가인 박화성 단편소설 중 일제강점기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그려낸 작품인 '호박'을 연극으로 재구성했으며, 학생들은 어머니, 딸, 남동생 등 역할에 어울리는 의상, 소품을 착용하고 사투리 비중이 높은 대사들을 무리없이 소화



하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